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가 함께 한 ‘체험! 직업의 현장!’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꿈 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사업(이하 꿈청진기)을 실시하였다. 올해 제3회인 꿈청진기는 지역 내 공공기관, 대기업, 연구기관, 중소기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의 선택지인 기업을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이 중 선택한 기업들을 사전조사 및 분석한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체험! 직업의 현장’ 사업이다. 또한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직업인을 인터뷰함으로써 취재 기자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꿈청진기’ 사업은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직업 현장을 체험해 보고 실제 직업인과 소통함으로써,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업들에 대해 직접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진로탐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꿈청진기 사업에는 대구지역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서 총 34팀(팀별 5명 내외, 총 110명)이 참가하였고, 대구은행, 대구테크노파크, 매일신문, 박순석 동물

메디컬센터, 엑스코, 푸딩, 푸른방송,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미드론의 10개 기업(가나다순)이 취재에 협조해 주었다.

취재 및 인터뷰 등 기자단 활동의 결과물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기사, 광고제작 부문)으로 각 7개 팀이 선정되었다. 제3호 꿈청진기 신문은 홈페이지(www.youngdream.c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각 팀의 활동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 수상 현황					
분야	기사분야		광고분야		훈격
최우수상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도와줘요 번개맨!〉	변영빈, 김재윤, 이준현, 권혁주, 황승빈	새론중학교 〈새론 ON〉	이다희, 오서연, 정서린, 김지후, 차보겸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왕선중학교 〈2YCD〉	윤금주, 윤지원, 최수연	유가중학교 〈꿈이고픈 아이들〉	박예은, 서비안, 김이경, 김민채	
우수상	포산중학교 〈스캔두잇〉	임도경, 김정혜, 이해주	상원중학교 〈온새미로〉	정주원, 장윤서, 윤다영, 김민지	매일신문 사장상
	상원중학교 〈온새미로〉	정주원, 장윤서, 윤다영, 김민지	성산중학교 〈꿈그림〉	류연주, 박서현	
장려상	도원중학교 〈우리미나〉	이지원, 김경민, 이류경, 조민아	강동중학교 〈ATTENTION〉	김수현, 성현주, 최윤서	매일신문 사장상
	새론중학교 〈새론 ON〉	이다희, 오서연, 정서린, 김지후, 차보겸	강동중학교 〈은희울〉	김성은, 최서희, 김하울	
	유가중학교 〈꿈이고픈 아이들〉	박예은, 서비안 김이경, 김민채	입석중학교 〈선돌기자단〉	배나현, 김근혜, 김민정	

언제나 대구와 함께하는

DGB대구은행



기업소개



DGB대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전문 기업이다. 대구 지역민의 편리한 은행 이용과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해 1967년 10월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이다. 전국 약 228개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서비스인 'IM뱅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 증권 원스톱 금융 서비스인 DIGNITY 복합점포,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영업점 등으로 고객이 편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이익 3,300억 원, IM뱅크 이용자 수 100만 돌파, 대구지역 매출 1위 기업 선정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DGB대구은행의 DGB는 'Digital & Global Bank'를 뜻하는데, 지방은행이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와 더 넓은 세계로 향한다는 기업의 포부이자 현재 모습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을 벗어나 타지역과 해외(상해, 호치민)에 영업점을 개설하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현지 법인을 출범시키는 등 글로벌 은행을 위한 도약에 힘쓰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상 인턴십, 학생 중심 독도 골든벨 등 각종 행사, 장학금 지원 사업, 자영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어깨동무 지원 센터' 운영 등 사회 공헌에도 신경 쓰고 있으며 사회와 환경에 대한 공헌과 공정한 지배구조 형성을 중요하게 여겨 ESG 경영을 실천 중이다. 또한 각 영업점에 종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종이 문서 사용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를 기업 미션으로, "Be the Game Changer! Act BEST!"를 경영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업 미션과 경영 비전은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업과 고객, 직원, 사회환경 전체에 기여한다. 'Game Changer는 금융의 핵심 선도자로서, 최고의 역량 결집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우선, 주인 의식, 성과 중심을 핵심 가치로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ESG 경영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왕선중 <2YCD>

업종현황

DGB대구은행의 주요 사업으로 모바일 은행 서비스인 IM뱅크를 빼놓을 수 없다. IM뱅크를 포함한 모바일 은행 서비스는 핀테크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여기서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 거래 과정을 전자화하여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라는 존재가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말부터이며 현재까지 그 시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또한 창구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전자화해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이용 속도가 빨라지며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는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업계의 주요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각 금융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힌다. IM뱅크는 타 은행 계좌를 포함한 이용자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 및 이체, 자산관리, 챗봇 상담 서비스, 얼굴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차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IM뱅크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은행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동시에 은행 서비스 이외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DGB대구은행의 주요 고객인 대구·경북 지역민이 모바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타 은행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DGB대구은행의 IM뱅크는 앞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바일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심중 <각산동 알파카들>

별이 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소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적을 이루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자

‘한 집 건너 커피숍’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매우 높지만 과한 경쟁으로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창업률은 15.5%(2020년 기준)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지만,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낮다. 이러한 창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진 창업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테크노파크(이하 TP)가 그 주인공이다.

TP는 새로 시작하는 작은 기업들이 부딪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다. 시제품 제작, 고가 장비 지원, 복잡한 서류 처리 등을 도와주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TP 소속의 다양한 센터에 창업 기업들을 입주시켜 임대료 할인 혜택도 준다. 전국 19개 지역에 있는 TP는 지역 산업 거점 기관으로의 역할도 수행한다. 지역 산업 발전 로드맵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지역 선도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TP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구TP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에 위치하며, 직원은 약 250명이다. ‘기업이 가장 찾고 싶은 파트너,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기업 지원에 연간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대구에는 대기업이 부족하므로, 대구TP는 지역 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스타기업 선정 사업을 통해 대구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한다. 최근에는 대구의 50년 미래 변역을 책임질 5대 미래산업[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도건우 대구TP 원장은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이다. 안정적인 직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창의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대구TP는 창업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창업 기반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대구TP의 이러한 활약은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구 경제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새론중 <새론On>



새론중 <새론On>

INTERVIEW

도건우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기업에 먼저 손 내미는 기관 될 것



Q.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업의 좋은 파트너’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세우는 데만 해도 여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구TP는 이러한 기업의 수고를 덜어주고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의 일처리를 보다 간단하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지역 기업의 문제를 먼저 찾고 알아보는, 먼저 손을 내미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창업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큰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대구테크노파크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스타트

업들을 육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창업 할 수 있는, 질 높은 창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창업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흔한 것을 소재로 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그 기업만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며, 대구TP는 혁신을 도모하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청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구TP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재들이 대구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구를 스마트산업 도시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관은 5대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집중지원해, 여러 신기술을 연구하도록 도우며 스마트산업 도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Q. 지역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평범한 삶보다는 항상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우리 지역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바꾸어 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새론중 <새론On>

INTERVIEW 안재연 대구은행 사회공헌홍보부 대리



Q. 대구은행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사실 대구은행이 지역 은행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나 현황을 봤을 때 대구지역 고객분들이 없었다면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현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대구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은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역민을 이해하는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지역 고객과 함께한다는 것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관련 홍보 상품도 다양하게 있는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선중 <2YCD>

대구경북 최다 독자를 보유한

매일신문사

매일신문

기업소개

80년간 신뢰성 있는 소식 전해주는 지역 대표 언론사

매일신문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뉴스를 아침마다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일간지다. 매일신문사는 대구시 중구 서성로, 경북 안동시 수호로에 각각 대구본사와 경북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 언론사다. 2021년 기준 매일신문사의 매출액은 대략 298억이다. 현재 230여명이 재직 중이며 사훈은 ‘꿈과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이다.



지금의 매일신문이 있기까지 매일신문은 끊임없이 달려왔다. 매일신문의 첫 시작은 1946년 3월 1일에 창간된 ‘남선경제신문’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0년 7월 1일, 전국지를 천명하며 지령 제4,780호부터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1980년 11월 30일에는 언론기관 통폐합 조치로 ‘영남일보’의 전체 인원과 시설을 인수하고 12월부터 다시 ‘대구매일신문’으로 발행하였다. 1988년에 제호를 ‘매일신문’으로 바꾼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1995년에는 지방지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2006년 7월에는 창간 60주년을 맞았다. 2009년 8월 4일에는 지령 2만 호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빠른 소식 전달을 위해 조건으로 체제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매일신문은 언론의 의무인 진실성, 책임성, 공정성, 공정성을 지키며 독자들에게 다가가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또한 편향되지 않는 가치를 기준으로 항상 신뢰성 있는 기사를 게재하며 사회를 알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포산중 <스캔두잇>



INTERVIEW 최병고 매일신문 디지털국 부국장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 ‘뿌듯’



Q. 기자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2003년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취재를 갔습니다. 동산병원에 갔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각국 외신에서도 취재하러 왔었던 큰 사건이라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Q.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사는 감성문이나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당연히 것이지만 진실을 숨겨서도 안 되고,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것을 써도 안 됩니다. 팩트만 놓고 쓰면 보고서가 되므로 기자만의 문제의식도 중요합니다. 글을 쓸 때 글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때 글에서 문제의식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글을 쓰는 목적을 지

업종현황

독자와 함께 시대와 함께 발맞춰 나간다

매일신문은 뉴스국, 신문국, 디지털국, 문화사업단, 제작국, 독자서비스국, 광고국, 총무국 등 여러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구·경북을 대표하여 지역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전달해왔다.

또한 매일신문은 많은 사회적 정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기자가 가져야 할 의문들을 기사에 녹여내어 매일신문만의 기사를 써 약 80년째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일간지로 자리잡았다.

매일신문은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각종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채널 서비스, 네이버 TV, 유튜브 TV매일신문 등 여러 매체를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재 네이버 뉴스채널 구독 200만 독과 및 유튜브 구독자 수는 16만 명을 넘기고 있다.

매일신문은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독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독자들에게 정보의 불을 밝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매일신문은 매일매일의 기사로 더 나은 내일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의 사명과 의무를 정직하게 지켜나가며 독자들에게 빛이 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나갈 것이다.

포산중 <스캔두잇>



입석중학교 <선물기자단>

애정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박순석 동물메디컬센터

Park Soon Seok Animal Medical Center
박순석 동물메디컬센터

기업소개



길거리에만 나가도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반려인의 고충까지 생각하는 박순석 동물메디컬센터의 설립자인 박순석 원장은 반려동물 외과수술 1만 건 돌파, 국내 최초 개 각각 이식 수술 성공, 국내 최초 항문 없는 송아지 항문 성형 수술 성공 등으로 잘 알려진 경력 27년의 베테랑 수의사다.

대구 남구 대명로에 위치한 센터는 지하철 대명역에서 1분, 버스정류장에서 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60면의 주차 공간도 갖추고 있다. 건물 2층에 있는 센터는 주 입구와 고양이메디컬센터 입구로 나누어지는데 다른 동물에 비해 예민한 고양이를 배려한 공간 배치다. 24시간 청정산소가 공급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고양이 메디컬센터의 경우 24시간 가시광 멸균 시스템이 가동된다.

센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개방형 ICU 입원실이다. ICU는 중환자실 또는 집중치료실이라 할 수 있는데 전신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급성 기능부전이 있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수용하여 24시간 체제로 집중적으로 치료 및 간호하는 병동이다. ICU를 개방형으로 만든 이유는 치료하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평에 이르는 공간에 최신 의료시설과 기기들을 갖추고 있는 센터는 동물보호연대, 대구동물보호연합, SBS 동물농장 등과 연계하여 동물 구조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들이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질병을 예측하고 선진적인 예방 치료가 가능한 ‘동물 계놈(유전자 질병진단)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 ICU: Intensive Care Unit (병원 내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한 특수치료시설)

성산중 <곰그린>

성산중 <곰그린>

강동중학교 <attention>



INTERVIEW 박순석 박순석동물메디컬센터 대표



Q. 진료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Q. 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만, 동물은 전체의 20% 정도만 의료 서비스를 받아요. 예산을 높이면 비반려인의 반발이 생기거든요. 저는 정책과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수의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아프지 않도록 돕는 것보다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Q.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조언해주신다면?

수의사가 인기 직종이 되었지만 국내에 수의과가 있는 대학이 11개밖에 없어요. 1년에 500~600명만 뽑아서 의과대학과 경쟁률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다양한 동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해요. 체력도 중요하고요.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있고,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고, 위급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공부도 너무 중요하지만,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29살에 ‘신디’라는 이름을 가진 시츄를 만났어요. 새끼였는데 온몸이 짓물렀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소시지를 찢지 않고 삼켰는데 그 모습이 우스웠어요. 그 계기로 10년 동안 제 환자이자 반려동물로 살았어요.

Q.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제가 까만 포메라니안을 키웠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지다 보니 무뎠겠지만 그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옥상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많이 들지만, 보호자의 감정도 감수해야 해요. 의료인과 수의사는 슬픔을 인내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니까요.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의사 직업의 전망은?

미래에는 AI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수의사는 사라질 가능성이 적다고 해요. 수의사는 광범위한 동물을 진료해야 하고 기계적인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수의사는 미래에도 필요한 중요한 직업입니다.

Q. 유기 동물 증가를 해결하는 방안은?

고의 유기와 방사에 대해서는 책임감,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과 동물등록 같은 국민 전체의 팻캣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TNR 사업으로, 개는 TNR 사업보다는 포획과 재입양 과정을 통해 개체 수를 줄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인지하고,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입니다.

※ TNR: Trap Neuter Return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

성산중 <곰그린>

마이스산업의 대표

엑스코

exco

기업소개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엑스코는 1995년 설립 이래 2001년 지방 최초로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했으며, 지속적인 전시장 확장과 함께 2022년 세계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낮은 인프라를 극복하고 연간 110건 이상의 전시회와 1,500건 이상의 회의 및 이벤트를 개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전시산업인 MICE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MICE 플랫폼’을 비전으로 정한 엑스코는 전시회 내 실화, 글로벌 자향, 경영정상화,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역 MICE 생태계 육성, 안심 공간 브랜드 인지도 확립, 친환경 경영 실천, 사무적 책무 이행,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9가지 추진전략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3가지 중점사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전시의 내실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20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주관 전시회를 기획, 개최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특화산업인 물, 첨단 의료,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로봇 등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엑스코 주관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 중이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전시회인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 ‘안전산업대전’ 등 연간 30여 회의 전시를 기획하고 개최하여 대형화와 국제화를 실현해가고 있다.

둘째, 고객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지역 MICE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내외 전시와 컨벤션을 유치하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비즈니스장을 제공한다. 22년 10월에 개최한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는 많은 전기자동차와 신소재를 사용한 기업을 홍보하고 국내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새롭게 발매하는 기업의 유치를 돕기 위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연간 1천여 건 이상의 행사를 개최,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돕고 있다.

셋째,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 참가자와 주최자는 물론 일반 방문객을 위한 웨딩 및 케이터링 서비스와 함께 편의 시설 임대, 광고 사업 등을 통해 이익을 꾀하고 있다. 엑스코는 다양한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으로 대구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포산중 <스캔두잇>



포산중 <스캔두잇>

INTERVIEW 이상길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Q. 엑스코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전시와 컨벤션 기획, 기업 유치, 마케팅 활동 등의 일을 합니다.

Q.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아서 좋은 심성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업체와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본지식은 물론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전시 배치를 위해서는 현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해외 셀러들과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 소양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업종현황

메타버스의 활용, 가상 전시관과 사회공헌

엑스코는 기업을 소개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성향이 큰 컨벤션 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엑스코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24시간 상시 전시를 기획 중이라 밝혔다.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기업과 만나볼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엑스코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안전 채용 시험장을 마련하여 각종 입사, 자격증 시험을 간편히 볼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2022년 6월 8일 엑스코에서 진행된 김치 나눔 봉사활동에는 엑스코 임직원 30명이 참여해서 담근 김장 300kg을 대구 북구 거주 홀몸 어르신 100세대에 나누어 드렸다. 이번만 아니라 봄에는 직접 만든 뽕 1,200개를 아동센터 17곳과 홀몸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하고, 가을에는 600여 평의 대추농장에서 대추 수확 봉사도 진행했다. 또 겨울에는 연탄나눔 봉사도 대구 서구지역 취약 가구 7곳에 2대의 보일러와 3,000개의 연탄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역 상생 강화를 위한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야외전시장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또한 엑스코 주관 전시회 기간 동안 지역의 계절 특산물 홍보·판매의 장을 마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포산중 <스캔두잇>



포산중 <스캔두잇>

웹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의 강점을 가진

(주)푸딩

PUDDING
PIONEER OF METaverse

기업소개

웹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의 강점을 가진

(주)푸딩은 2019년 5월 설립된 기업으로 사원 수 26명의 중소기업이며, 메타버스 솔루션, 블록체인 솔루션, NFT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회사이다. (주)푸딩이 현재 진행 중인 메타버스 프로젝트 ‘푸딩월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교육, 전시, 온라인마켓 등 다양한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푸딩월드를 기반으로 2021드론페스타, 메이커페스타, 푸딩갤러리, 비대면 심리상담 플랫폼인 휴먼그레인, VR비대면 미팅 시스템인 Join VR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푸딩플랫폼에는 웹 기반 재택근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딩오피스와 화상채팅을 제공하는 푸딩하우스, 3차원 가상 스튜디오인 푸딩스튜디오가 있다. 푸딩오피스는 업무 프로그램 관리의 부재 및 재택근무가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재택근무 서비스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구글 행아웃을 통한 화상회의, 전화통화 및 실시간 채팅기능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사내 정보관리 시스템, 거래처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등 많은 기능을 푸딩오피스 하나로 편리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푸딩하우스는 동등한 수준의 화질과 전송속도로 최대 20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여러 화상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과 강력한 보안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각종 문서와 자료도 공유할 수 있다. 주요 납품 기관에는 비대면 홀트레이닝 플랫폼인 J-Pit과 비대면 심리상담 플랫폼인 휴먼그레인 등이 있다.

푸딩스튜디오는 XR을 이용한 3차원 가상 스튜디오로 다양한 FX를 제공하고, 실제 카메라와 가상 스튜디오 카메라의 위치 동기화로 자연스러운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 고성능 크로마키 기술을 활용하고 실제 영상 캡처보드를 통한 합성 트래커 캘리브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푸딩은 여러 복지제도와 직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로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사원 수는 최근 1년 기준 증가 추세에 있다. (주)푸딩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이다.

유가중 <꿈이고픈아이들>

INTERVIEW 홍성민 푸딩 경영지원팀 사원

Q. 사업 시스템 부분에서 푸딩만의 장점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없이 웹에서 푸딩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푸딩월드 안에서 동영상상을 띄워 사람들과 함께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Q. 푸딩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기획서를 작성하고, 확정되면 담당자와 연계하여 진행 및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메타버스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푸딩만의 사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메타버스 시스템을 인터넷 웹으로 도입한 것은 저희 푸딩이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분야의 선두주자 타이틀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개척해나가는 시장이

업종현황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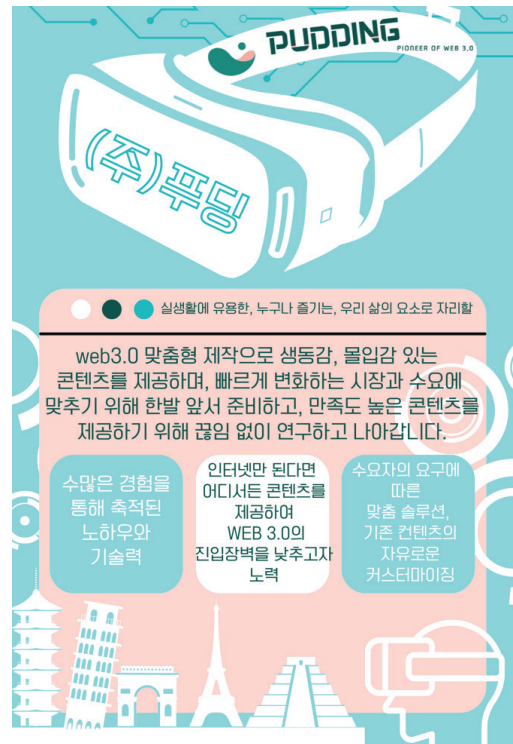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바타를 활용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5G의 상용화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어 무한한 확장성과 함께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미 SNS와 아바타를 이용한 게임 등으로 실생활에서 메타버스를 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의 소통과 문화생활, 취미활동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가 주목 받는 현 상황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주)푸딩만의 기술은 대중들에게 메타버스를 더 널리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중 <꿈이고픈아이들>



유가중 <꿈이고픈아이들>

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조라는 타이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서 입지를 굳건히 다질 생각입니다.

Q. 푸딩 기업의 조직과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우리 회사는 크게 경영지원팀, 디자인팀, 웹 개발팀, 클라이언트 개발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이나 보고서 작성 등과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상대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맡고 있습니다. 디자인팀은 푸딩월드의 건물과 캐릭터 디자인,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등에 관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웹 개발팀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UI와 UX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개발팀은 월드 내부 프로그램 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메타버스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광고도 진행하고 있고, 푸딩월드를 이용한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것을 진행하며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경북권 내에서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후 전국 확대와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중 <꿈이고픈아이들>

시청자와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방송

푸른방송



기업소개

지역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설 문화센터 인기

푸른방송은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위치한 지역 최고의 방송통신 전문 케이블 TV 방송국으로, 직원 수 68명의 중소기업이다. 1994년 3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평균 연봉은 4,000만원 미만이다. 인간을 위한 정보 전달, 건강한 사회문화 창달, 깨끗한 환경 조성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창립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현재 푸른방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푸른방송 뉴스, 버스킹&시간여행, 정겨운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최고, 갯일우의 유머토의, 어르신 홈 배움터 요가, 열린 마당, TV 속의 라디오, 시청자 참여 비디오, 달콤한 노래인생 등이 있다.



푸른방송은 시청자들이 품질, 서비스, 방영 프로그램 종류 등의 면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 디지털 케이블방송, 인터넷(서비스), 헬로렌탈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시청자들을 고려해 가격은 내리고, 상품 선택의 폭과 품질은 높인 결과 올해 1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이용자 만족도 부문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또 푸른방송은 항상 시청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애쓴다. 매달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케이블TV는 프로그램별로 시청자가 명확해 특정 광고를 최적의 고객에게 방영할 수 있고, 길이와 형식 면에 제약이 없어 광고에 다양한 내용과 효과를 입힐 수 있다. 푸른방송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지역사업자들에게 공중파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방송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푸른방송은 문화센터를 함께 운영해 달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1995년 1월에 개관한 푸른방송 문화센터는 미술, 음악, 댄스, 난타, 취미&교양 등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다. 연간 10,000여 명의 회원을 배출하며 1999년 9월에는 문화관광부 '한국 문화학교'로 선정되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떠올랐다.

시청자와 지역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푸른방송이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된다.

유가중 <꿈이고픈아이들>

업종현황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자리 잡아온 케이블방송

텔레비전 방송 수신이 곤란한 지역의 난시정 해소 대책용으로 처음 생겨난 케이블방송은 1995년 3월, 뉴미디어 시대의 총아라는 기대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총 28개 채널로 시작할 당시에는 가입자 수가 적고, 많은 규제로 혼란스러워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자 케이블방송도 조금씩 발전하면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퍼트리 나갔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대용량의 채널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공중파 방송에 비해 전문성과 선택성이 강한 매체로 발전했으며, 전화와 컴퓨터의 통합 전송이 가능해 초고속 정보통신망(Super Information Highway)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도 성장한 케이블방송은 부가 서비스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편리함을 주고 있다. 음성과 화상을 함께 송수신할 수 있는 화상전화, 일반 전화선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가정에서 은행 온라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홈뱅킹, 원격 교육이나 원격 의료 서비스, 그리고 원격 방법이나 원격 방제 등 모두 케이블방송의 성장으로 함께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꾸준한 성장으로 1995년 초기 가입자 수가 55만 가구였던 것이 1996년 153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2001년 12월에는 800만 가구, 개국 10년만인 2005년에는 1,300만 가구(전체 가구의 75%), 그리고 2012년에는 1,500만 가구로 가입자가 급증했다. 그리고 시청률 또한 2000년 1.5%에서 2004년 28.8%까지 성장했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유료방송 중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서 총 89개 사가 있다. 앞으로도 케이블방송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미디어 세상에 발맞춰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중 <꿈이고픈아이들>



입석중 <선물기자단>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업소개

로봇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다

산업현장의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 현장 근로자의 일손을 돕는 단순 기계를 넘어, 이제는 사람과 유사하게 생김 감정을 나누는 로봇과 식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 계산기, 운전자 없이 알아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배달 기사의 수고를 덜어주는 배달용 드론 등 많은 것이 변화되고 더욱 편리해졌다.

이러한 변화를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 칭했고,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빠질 수 없는 '로봇'이다. 그러나 로봇의 '편리함'이라는 장점 뒤에는 많은 단점 역시 존재한다.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난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난제를 잘 극복하고 해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인간, 로봇, 더 나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구 북구 노원로에 위치한 진흥원은 145명의 직원이 로봇 사업 관련 정책개발, 인증평가,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개발에는 기본계획 수립, 로봇산업 실태조사 등이 있고 인증평가에는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 KOLAS 공인시험 기관 운영, 시제품 제작 및 생산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지원에는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사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및 보급사업, 로봇산업 글로벌화 등이 있으며 인재 양성에는 로봇기반 혁신선도 전문인력 양성사업, 경진대회 등이 있다.

진흥원은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는 미션과 인간, 로봇, 더 나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로봇산업 진흥기관이라는 비전, '공헌·배려·혁신', '정제성·공명·혁신·능력'이라는 공유가치를 내걸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진흥원은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출산, 육아, 가족 돌봄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일, 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제도인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3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도원중학교 <우리미나>



INTERVIEW

전정현 푸른방송 PD



Q. PD들이 카메라를 들고 또는 참가자들과 소통을 하는 영상을 많이 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PD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방송의 의도를 설정하고 설비를 준비시키는 등 기획과 총감독을 맡아야 합니다. 결국 기획과 연출 진행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Q. 코로나 시기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020년 당시 외부활동과 거리두기 정책이 생기면서 2년간 진행했던 생방송에 차질이 생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트렌드에 맞추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공감해주며 코로나 시기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Q. PD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PD를 직업으로 가져서 좋았던 점과 좋

경복기계공고 <도와죄요번개맨>

INTERVIEW

손일영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책임



Q. 로봇이 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 본래의 감성과 감정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로봇이 이러한 세부적인 면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튜링 테스트란 대화하는 사람이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하는 테스트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튜링 테스트로 로봇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로봇이 사람의 감정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이라 말하는 미술, 음악, 문학을 이미 로봇들도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해야 할 부분과 로봇이 해야 할 부분을 나누는 것보다 로봇이 어떻게 인간을 도와주는지 고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나쁘게 사용하는 것과 좋게 사용하는 것의 윤리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Q.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 하는 일과 노력은 무엇인가?

로봇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학과 학생들, 로봇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다

니고자 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도 있고 사업 프로젝트를 함께하여 로봇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일반 직원들이 로봇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 로봇대회를 만들어 참가 기회를 준다거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로봇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업이 만들어낸 로봇을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 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이라 하는데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과제를 선정하여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형 로봇을 팔고 기록을 만들면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더 좋은 로봇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싼 가격에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원중 <우리미나>



상원중 <온새미로>

ICT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업소개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등으로 지능 정보사회 구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하 진흥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전산원이 2009년 통합되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2022년 기준 약 760명의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1조 5,754억 원, 연봉은 평균 6,786만 원에 달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 현안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곳의 주요 역할이며, 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지능 정보사회 구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진흥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과 인공지능, 데이터, 초연결 인프라 확산에 초점을 둔다.

진흥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지원본부, 지능데이터본부 등 총 8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디지털플랫폼 정부지원본부는 규제혁신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또 민간협업을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맞춤형 국민 체감 서비스를 발굴 및 확산하며,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킨다.

한때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던 백신접종 예약서비스에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접속해 과부하가 발생하였다. 진흥원은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인증예약 대기 등의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에 이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1인 다채널 접속방식 등 다양한 신규기능을 구현해 원활하게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 예이다. 이러한 선례가 쌓이면서 진흥원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진흥원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확산하여 지능화 기술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기지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난 36년간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ICT 선도국가로 거듭나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을 선점하여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산중 <스캔두잇>



포산중 <스캔두잇>

INTERVIEW 정원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Q. 최근 디지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디지털의 역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가속화와 원격 수업, 원격 근무 등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 지나친 이용으로 인터넷 의존 심화와 최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확대, 역기능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Q. 건전한 정보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진흥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흥원은 디지털 활용의 세대별·계층별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

업종현황

정보통신기술로 4차 산업혁명 주도

21세기에 들어서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하 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현실세계에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 초점을 뒀느냐의 차이가 있다. 단순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은 각종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연관 분야 중 하나인 지능정보 관련 직업으로는 정보보호 전문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와 무관하게 정보통신기술을 자신의 직업 환경에 맞게 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맞는 인재라 할 수 있다.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14)에 의하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자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사업체는 2008년 대비 190.9% 증가하였고, 관련 산업 종사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컴퓨터정보기술 등 디지털 기술들과 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진흥원은 지능정보 관련 업종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경북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국가 ICT 사업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진흥원은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융합 및 응용 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새론중 <새론ON>

이 디지털을 쓸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디지털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전략을 수립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정보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과 회의감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뿌듯한 때는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바꾸는 것을 느꼈을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에 다닌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회의감을 느꼈던 순간은 오래 고민하고 만든 시스템이 막상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Q. 정보 관련 분야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픈 말은 무엇인가요?

ICT 기술은 기존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접목되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ICT 기술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과 코딩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며, 그 기술을 적절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것을 기획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ICT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안다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느냐와 상관없이 경쟁력 있고 뛰어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산중<스캔두잇>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주)한미드론



기업소개

방제·방역사업 비롯 조종 전문가 양성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TV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드론, 아이들이 갖고 놀기 좋은 개인용 드론, 불을 끄는 소방용 드론까지 우리 주변에 드론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다. 이 드론을 주산업으로 하는 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 대구에는 드론의 제조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방제, 방역 사업과 조종 교육, 항공 촬영, 수색, 정찰, 방범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주)한미드론이 있다.

(주)한미드론은 2019년에 창업한 중소·스타트업 기업으로,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하고 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드론 방제와 방역이다. 현재 (주)한미드론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일대 330,578㎡(약 10만 평)와 경북 지역을 합쳐 모두 4,439,669㎡(134만 3천 평), 부산시 약 297,520㎡(9만 평) 정도를 방제하고 있다. 또한 경남 밀양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소독 드론 방역을 실시했고, 대구 최초로 동구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드론 방역을 실시했으며, 안심습지에서 대구 최초로 드론 방역을 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재연행사와 대구 국제마라톤 촬영을 지원하는 등 항공촬영 분야에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기술력을 보유한 DJI사의 전 제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리 및 교육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한미드론은 드론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교육 및 실무 특화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도 배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와 접목한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주)한미드론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지중 <DREAMTREE>

INTERVIEW 오윤석 (주)한미드론 대표

범죄에 이용되기 쉬워 조종사의 도덕적 책임 막중



Q. 드론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드론은 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나 국가 기밀시설 촬영 및 판매 등의 범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도 기계이기 때문에 비행하다 오류가 생기거나 조종사의 실수로 사람을 덮쳐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드론 관련 직업군이 가져야 할 자질 같은 것이 있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늘을 나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범죄는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드

업종현황

시와 접목 시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모든 것을 인간이 스스로 다 해야 했던 옛날과는 달리 현대에는 기계, 더 나아가 로봇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나 위험한 또는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하게 한다. 현대사회에서 상용화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로봇이 바로 '드론'이다. 드론은 방제·방역, 방범, 항공촬영, 군사, 소방, 레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거대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

아직은 드론이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분야는 아니지만 향후 AI 기술의 발달과 배터리 기술 발달에 따라 활용 분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미래 전망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시기에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하여 '드론 택시'로 사람을 운송할 수 있을 것이고,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어 인력으로 유지·보수하기 힘든 광대한 인프라에 AI의 답러닝을 접목하여 사람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이렇듯 드론은 더욱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쓰일 수 있다.

다빈치 연구소장이자 미래학자인 Thomas Frey가 미래에 드론이 쓰이게 될 분야로 초기경보 시스템, 뉴스 리포트, 마케팅, 목장, 부동산 등 192가지를 제시하기도 했을 만큼 앞으로의 드론 산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10년 후 (주)한미드론과 같은 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 변화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전 모습을 생각하며 상상해 본다.

구지중 <DREAMTREE>



강동중 <ATTENTION>

론 관련 직업군은 도덕적인 책임이 막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 조종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나는 범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Q. 드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일단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드론 자격증도 조종하려는 드론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방제용 드론은 1종, 산업용 드론은 3종, 그리고 평범하고 작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4종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자격증을 먼저 따고 난 후 자기가 일하려는 분야에서 더 훈련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또한 드론을 직접 조종해야 하므로 드론 조종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드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의 우선적인 취득과 실력 향상을 위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Q. 드론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 같은 것이 있을까요?

드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 저희 (주)한미드론은 어떻게 하면 드론을 이용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접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구지중 <DREAMTREE>

미래를 배운다 * 함께 성장한다

창의 융합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감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겠습니다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품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겠습니다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꿈찾는 청소년 진로탐구 기자단

꿈청진기는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정보, 기업 분석, 직업인의 특성 등에 대한 취재 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 온라인 기사작성 등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결과물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